

## 『黃帝內經』의 形神關係論

1. 導論 .....	28
2. 肉體와 精神의 의미 .....	29
1) 肉體 .....	29
2) 精神 .....	29
3. 肉體와 精神의 合一 .....	30
1) 精神과 肉體사이에는 陰陽과 같은 對待적인 특성이 있다. ....	30
2) 精神은 肉體의 활동을 主宰한다. ....	32
4. 氣는 形神合一의 媒介體다. ....	33
5. 結論 .....	35
參考文獻 .....	35

KYOBO  
교보문고

# 『黃帝內經』의 形神關係論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教室 丁彰鉉

## 1. 導論

『黃帝內經』은 인간을 天地自然의 氣가 모여서 이루어진 존재이며<sup>1)</sup>, 동시에 정신과 육체의 통합체라고 인식하였는데<sup>2)</sup>, 이는 전국시대의 정신과 육체에 대한 諸家說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국시대 대부분의 사상가들 특히 黃老學派는 氣本體論적 사고와 形神二分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모두 精氣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즉 精氣가 사람을 만드는데 하늘의 精氣가 인간의 정신을 만들고 땅의 精氣가 인간의 육체를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은 비록 육체와 정신이 모두 精氣로부터 化生된 것이라고는 했으나, 실제로는 정신과 육체가 각각 하늘과 땅에서 비롯되었다<sup>3)</sup>고 하여 그 근원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인식하였다<sup>4)</sup>. 또 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하늘로 올라

가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 역시 정신과 육체의 근원을 다르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 이전의 종교적인 인간관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黃帝內經』은 전국시대의 인간의 본질을 氣로 인식하는 사고와 인간이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사고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陰陽論적으로 昇華시켜서 육체와 정신을 相互相生하며 相互依存하는 관계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더우기 『黃帝內經』은 形과 神의 관계가 상호 대등하면서도 동시에 상호 主從의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黃帝內經』에서 神을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그 때마다 神의 形에 대한 위상이나 작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形은 神이 깃들어 있는 곳<sup>5)</sup>이므로 形이 온전하면 神 또한 온전하며, 形이 온전치 못하면 神 또한 정상적이지 못하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神은 形을 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形의 滋養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이처럼 形과 神은 상호 동등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神은

1) 『素問·寶命全形論』에서 “人以天地之氣生”, “天地合氣命之曰人”이라고 하였다.

2) 『素問·上古天真論』에서 “形與神具”라고 하였다.

3) “精氣爲人, 是故精神者天之有也, 而骨骸者地之有也, 精神入其門而骨骸反其根.” 『淮南子·精神訓』(漢文大系20, 淮南鴻烈解, 卷第七, 精神訓, p. 1)

“夫精神者所受於天也, 而形體者所稟於地也.” 『淮南子·精神訓』(앞의 책, 같은 곳)

“凡人之生 天出其精, 地出其形, 合此以爲人.” 『管子·內業』(漢文大系21, 管子纂註, 卷十六, 內業 第四十九, p. 8)

4) 이외에도 『莊子·知北遊』에서는 “精神生於道, 形本生於精”이라 하여, 정신과 육체의 근원을 다르게 인식하였다. (張基樞·李錫浩 譯, 『老子·莊子』, 三省出版社, 1987, pp. 392)

5) “精氣乃光, 合形與氣, 使神內藏” 『靈樞·根結』

形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形은 神의 調整를 받는 주종관계도 존재한다. 결국 이 둘 사이의 관계는 神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 2. 肉體와 精神의 의미

### 1) 肉體

『黃帝內經』에서는 肉體를 形 또는 器로 표현하고 있는데 器가 藏府, 肌肉 등 形體를 가리키는 것에 비해 形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다. 形은 形體 뿐만 아니라 脈狀, 症狀 등 인체 생명활동 과정에서 밖으로 드러난 모든 현상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 역시 형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形도 결국은 육체의 의미를 벗어나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黃帝內經』에서 '形'字가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形肉, 形藏, 形骸, 形能, 形體, 形志 등으로 거의 대부분이 형체를 의미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形에 대해,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氣合而有形”이라 하여, 氣가 뭉쳐서 된 것이 形이라고 했다. 이는 곧 인간의 육체가 氣가 모여 된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인간에 있어서 形이란 육체를 구성하는 精血, 津液, 筋骨, 肌肉, 皮毛, 經絡, 藏府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氣가 뭉쳐 형성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故器者, 生化之宇, 器散則分之, 生化息矣”라 하여, 形을 그릇(器)에 비유하였는데, 그릇에 비유한 것은 形이 神과 氣를 담고 있어 神機之物과 氣立之物이 升降出入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王冰도 “器, 謂天地及諸身也. 宇, 謂屋宇也. 以其身形包藏府藏, 受納神靈, 與天地同, 故皆名器也.”<sup>6)</sup>라 하여, 器는

天地自然이나 모든 생명체의 몸으로서 그 내부에 神을 담고 있다고 했다. 또 張介賓은 “器即形也, 凡萬物之成形者, 皆神機氣立之器也.”, “宇者, 天地四方曰宇, 夫形所以存神, 亦所以寓氣, 凡物之成形者, 皆曰器. 而生化出乎其中, 故謂之生化之宇.”<sup>7)</sup>라 하여, 器는 神機之物이나 氣立之物의 형체로서 그 내부에는 神이나 氣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인간에 비취 본다면, 器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내부에는 정신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인간이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인데, 이는 “是以升降出入, 無器不有”, “無形無患” 『素問·六微旨大論』이라고 한 것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즉 升降出入은 생명활동을 말한 것인데, 만일 神이나 氣를 담을 형체가 없어지면 생명활동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연히 질병같은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神機之物인 인간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인간의 생명활동은 육체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黃帝內經』이 인간을 육체와 정신이 합일된 존재라고 생각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 2) 精神

『黃帝內經』에 나오는 神의 의미는 크게 天地自然의 정신과 인간의 정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 인간의 정신도 생명활동의 근본 규율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의 정신과, 육체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육체에 의존하여 발현되는 감각, 지각, 의식, 사유 등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정신으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정신은 천지자연의 정신에 상응하는 인간의 정신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간의 총체적인 생명활동의 규율을 말한 것이다. 좁은 의미의 정신은 形 즉 육체에 상대되는 개념

6) 陳夢雷·蔣廷錫等著, 《圖書集成醫部全錄2》, 大星文化社, 1986. pp. 222

7) 張介賓, 《類經(上·下)》, 大星文化社, 1986. pp. 555

으로, 육체와 상합하여 인간의 감각, 지각, 의식 및 사유 등을 주관하는 정신작용을 지칭하는 것이다<sup>8)</sup>.

이와 같은 精神의 이중적 의미로 인하여, 精神은 肉體와의 관계에서도 이중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즉 精神은 인체에 있어서 생명활동의 근본, 규율로서 육체를 조절, 통제하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명활동 현상의 일환으로 육체적 활동에 상대되는 정신적 활동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육체와 정신 사이에는 상호 대등한 측면과 상호 主從的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 3. 肉體와 精神의合一

『黃帝內經』에서는 인간을 정신과 육체가 결합한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만약 두요소가 서로 떨어져서 생명은 곧 소멸된다고 생각했다. “形與神具而盡終其天年”(『素問·上古天真論』), “人之血氣精神者, 所以奉生而周於性命者也.”(『靈樞·本藏』), “形體不蔽, 精神不散, 亦可以百數”(『素問·上古天真論』) 등은 모두 形과 神이 합일되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고, “人身與志不相有, 曰死”(『素問·逆調論』), “神氣皆去, 形骸獨居而終矣.”(『靈樞·天年』) 등은 모두 形과 神이 분리되면 곧 죽게 됨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黃帝內經』의 이러한 인간관을 形神合一論의 人間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체와 정신은 상호 동등하게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정신은 육체를 조절하고 통제하며 육체는 정신의 調整를 받는 종속관계도 존재한다.

8) 이에 대해서는 拙稿 “神에 대한 연구 - 《黃帝內經》을 중심으로”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두가지 관점에서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 1) 精神과 肉體사이에는 陰陽과 같은 對待적인 특성이 있다.

『黃帝內經』에서는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素問·陰陽應象大論』)라 하여, 天地自然의 모든 만물이 陰陽運動을 바탕으로 생성, 변화,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인식했다. 『黃帝內經』은 이러한 陰陽의 법칙을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인체의 모든 생명활동 현상을 이해하고 또 설명하려고 했다. 예컨대, 『素問·寶命全形論』에서 “人生有形, 不離陰陽”이라 한 것은 곧 인체가 陰陽을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黃帝內經』이 인간을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로 본 것도 인간을 陰陽論의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張介賓도 “命之所繫, 惟陰與陽<sup>9)</sup>”이라 하여, 생명활동도 결국은 음양운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夫陰陽之體曰乾與坤, 陰陽之用曰水與火, 陰陽之化曰形與氣, ……形即精也, 精即水也, 神即氣也, 氣即火也.”(『類經附翼·大寶論』)<sup>10)</sup>라 하여, 인간의 육체는 水, 陰에 속하고 정신은 火, 陽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물은 내부의 陰과 陽이 서로 통일되고 조화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운동변화할 수 있으며, 陰과 陽이 서로 분리되면 사물의 운동변화가 멎게 된다. 다시 말하면 陰과 陽은 각기 따로 독립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孤陽不生, 獨陰不長).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 역시 육체와 정신이 서로 통일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정신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면 생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즉 정신이 있음

9) 張介賓, 《類經圖翼》, 大星文化社, 1986. pp. 272

10) 앞의 책, pp. 272

으로 해서 육체가 생명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육체가 있으므로 해서 정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과 육체의 共生共存의 관계는 상대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 가능하게 되는 陰陽의 對待의인 특성<sup>11)</sup>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육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해 張介賓은 또한 內外關係, 體用的 關係로 설명하였다. 예컨대, “形 成於外, 神藏於內<sup>12)</sup>”라 하여, 정신과 육체 사이에는 內外的인 對待關係가 있다고 했으며, 또 “形者 神之體, 神者形之用, 無神則形不可活, 無形則神無以生.”<sup>13)</sup>이라 하여, 육체와 정신 사이에는 體用的 對待關係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정신과 육체를 대대적인 관계로 보는 『黃帝內經』의 사고는 현대 물리학의 양자이론에서 사물을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상호작용하고 있는 개체들로 분석하는 입장을 버리고 그 보다는 쪼개어지지 않는 전체로 보려고 하는 관점과 유사한 면이 있다.<sup>14)</sup> 실제로 풀은 정신과 육체의 대대적인 관계를 파동과 입자의 대대적인 관계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인식하였다.<sup>15)</sup>

11) 이에 대해서는 최영진도 《周易》의 陰陽理論을 도입하여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대대적 관계로 규정하였다. 즉 그는 “음양의 관계를 정신과 물질의 문제에 적용시킨다면, 정신과 물질 그 자체가 대대적 관계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物이며, 정신과 물질을 초월한 실체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 된다.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정신과 물질이라는 개체가 결합되어 하나의 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物이라는 유기적인 통일체의 대대적인 두 측면 또는 두 작용의 양상을 정신과 물질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최영진, “精神과 物質의 문제에 관한 易學的 考察”, 《주역의 현대적 조명》, 韓國易學會編, 범양사, 1993, pp. 398)

이를 인간에 비유해 보면, 정신과 육체는 각각이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과 육체가 통합된 존재의 두 측면이라는 것이다.

12) 張介賓, 類經, 앞의 책, pp. 299

13) 앞의 책, pp. 439

14) 풀 데이비스 지음, 류시화 옮김,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정신세계사, 1989년의 책, pp. 171

15) 앞의 책 pp. 166

이러한 육체와 정신의 대대관계에 대한 『黃帝內經』의 관점은 다음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形은 神에 의존하여 生成, 운동, 변화한다.

『黃帝內經』은 “兩神相搏, 合而成形”(『靈樞·決氣』)이라 하여, 인간의 육체가 神에 의해 생성된다고 했으며, 또 “肝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素問·五藏生成』)이라 하여, 정신이 주도하는 經脈의 순환을 통해 氣血을 공급받아서 육체의 기능활동이 발현된다고 했다. 따라서 정신의 이상은 곧 질병의 발생을 초래하고 또 육체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예컨대 『素問·疏五過論』에서 “雖不中邪, 精神內傷, 身必敗亡”이라 하여, 정신이 손상되면 형체가 반드시 크게 손상된다고 하였으며, 『靈樞·本神』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五神이 각각 손상됨에 따라 나타나는 “破腦脫肉”, “四支不舉”, “皮革焦”, “陰縮而攣筋”, “腰脊不可以俛仰屈伸” 등의 형체의 손상을 열거하였다. 뿐만 아니라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으로 九竅가 막히고 밖으로는 肌肉에 癰腫이 생긴다<sup>16)</sup>고 했다.

또 『黃帝內經』은 정신이 건전하고 안정되면 형체도 또한 튼튼하게 되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素問·上古天真論』에서 “恬淡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라고 한 것이 이를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莊子도 “抱神以靜, 形將自正”, “女神將守形, 形乃長生.”이

엄격히 말한다면, 입자는 形에 해당하는 것이며, 파동은 氣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神도 일종의 氣라고 볼 수 있으며, 또 氣는 神의 발현이므로 정신과 육체의 대대적인 관계와 파동과 입자의 대대적인 관계는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6) “聖人傳精神, 服天氣, 而通神明. 失之則內閉九竅, 外壅肌肉……”

라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정신의 변화에 따라 顏色이 변하거나 눈물이 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경우를 『黃帝內經』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黃帝內經』의 저자가 인간의 육체를 정신에 의해 생성되고, 또 운동,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2) 神은 形에 의지하여 化生되고 존재하며, 形의 滋養을 받는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是以升降出入, 無器不有, 故器者, 生化之字, 器散則分之, 生化息矣”라 하여, 형체(形)를 물건울 담는 그릇(器)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器 즉 形은 神이나 氣가 升降出入하며 활동하는 물질적 기초로서 器가 없으면 神과 氣의 升降出入 또한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또 “無形無患”이라 하였는데, 이는 形이 없으면 生도 없고 化도 없으므로 病도 또한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靈樞·天年』에서도 “血氣已和, 營衛已通, 五臟已成,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爲人.”이라 하고, 또 “百歲, 五藏皆虛, 神氣皆去, 形骸獨居而終矣.”라 하였는데, 이는 정신의 存亡이 五藏의 盛衰에 달려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또한 神이 形에 의지하여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곧 神이 形에 의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으며, 形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또 『黃帝內經』은 정신이 先天의 精에 의해 化生되며 後天의 水穀의 精에 의해 滋養을 받다고 인식하였다. 즉 『靈樞·本神』에서 “兩精相搏謂之神”이라 한 것은 곧 精神이 先天의 精에 의해 化生됨을 말한 것이며<sup>17)</sup>,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

17) 사실 精에는 이미 精神과 形體가 이미 합일되어 있으나, 《靈樞·本神》의 내용이 물질이 정신을 化生하는데 초점을 맞춰 서술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精을 形이라고 본 것이다.

乃自生” 『素問·六節藏象論』, “故氣得上下, 五臟安定, 血脈和利, 精神乃居, 故神者 水穀之精氣也.”(『靈樞·平人絕穀』) 등은 정신이 後天의 水穀의 精氣에 의해 滋養을 받음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黃帝內經』은 形의 盛衰가 精神의 存亡에 至大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素問·上古天真論』에서 “形體不敝, 精神不散”이라 한 것이나,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器散則分之, 生化息矣”, “升降出入, 無器不有”라 한 것 등이 모두 이를 말한 것이다. 이외에도 『黃帝內經』은 藏府의 大小, 堅脆, 高低 등에 따라서도 정신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五藏皆偏傾者, 邪心而善盜, 不可以爲人平, 反覆言語也.”라 하여, 五藏이 기울어지면 인간의 정신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고 했다.

그래서 『黃帝內經』은 정신의 안정을 위해서는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素問·上古天真論』에서 “食飲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 故能形與神俱, 而盡終其天年, 度百歲乃去”라 하여, 형체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여 잘 보존할 것 같으면 정신이 따라서 안정되어 壽命을 다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莊子』에서도 보이는데, 莊子は “形全者神全”이라 하여, 형체가 온전하면 정신도 따라서 온전하게 된다고 했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 “積精全神”이라 한 것도 또한 마찬가지 뜻이다. 이상에서 정신이 形에 의지하여 化生되고, 존재하며 또 形의 滋養을 받아 기능을 발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精神은 肉體의 활동을 主宰한다.

정신과 육체의 관계는 陰陽의 대대적인 관계와는 또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즉 『黃帝內經』은 神과 形의 대대적인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神의 形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神이 갖는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인데, 앞의 단순한 대대적인 관계를 논할 때의 神이 육체에 의존하여 발현되는 생명활동 현상의 한 측면인 정신작용을 주로 말한 것이라면, 여기서의 神은 대개 생명활동의 규율인 넓은 의미의 정신, 즉 神明을 의미하는 것이다.

육체보다 정신을 중시하는 사상은 『黃帝內經』 이전부터 상당히 보편화된 것이었다. 즉, 『淮南子·原道訓』에서는 “以神爲主者, 形從而利, 以形爲制者, 神從而害.”<sup>18)</sup>라고 하여,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정신이 주가 되고 육체가 從이 되는 관계로 보았다. 또 『史記·太史公自序』에서는 “神者生之本也, 形者生之具也.”<sup>19)</sup>라고 하여, 육체는 단지 정신이 자리하는 껍데기일 뿐, 생명의 근본은 정신이라고 했다. 또 『管子·內業』에서는 “修心而正形”<sup>20)</sup>이라고 하여, 마음을 닦음으로써 육체를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 『淮南子·精神訓』에서는 “心者, 形之主也. 神者, 心之寶也.”<sup>21)</sup>라고 하여, 心神이 육체의 주인이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黃帝內經』 이전부터 정신을 육체의 주인으로 보는 사고가 매우 광범위하게 유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黃帝內經』도 마찬가지여서 여러 곳에서 形보다 神을 중시한 흔적이 엿보인다. 예컨대, “靈守形, 上守神”(『靈樞·九鍼十二原』), “一曰治神, 二曰知養身”(『素問·寶命全形論』), “凡刺之眞, 必先治神.”, “無以形先”(『素問·寶命全形論』) 등이 모두 그러한 예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신이 육체의 활동을 주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의 전체적인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心爲君主之官, 神明出焉. ……主不明則十二官危, 使道閉塞而不通, 形乃大傷, 以此養生則殃.”이라고 하여, 인체 생명활동의 근본인 心神이 온전하지 못하면 인체의 五藏六府가 모두 위태로워지고 결국에는 죽게된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黃帝內經』은 “失神者死, 得神者生也”(『靈樞·天年』)라 한 것이다. 이처럼 『黃帝內經』은 육체와 정신을 陰陽對待的인 관계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정신이 육체의 기능활동을 주재한다고 생각했다.

#### 4. 氣는 形神合一의 媒介體다.

『黃帝內經』에서는 모든 天地自然의 萬物이 모두 氣가 모여서 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예컨대, 『素問·天元紀大論』에서 “在天爲氣, 在地成形, 形氣相感, 而化生萬物矣.”라 하여, 天氣와 地氣가 서로 감응하여 만물을 化生한다고 인식하였다. 인간도 또한 마찬가지로 天氣와 地氣의 相合에 의해 생성된다고 인식하였는데, 『素問·寶命全形論』에서 “天地合氣, 命之曰人”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氣의 陰陽運動에 의해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되며, 인간의 육체와 정신도 역시 氣를 바탕으로 각각의 기능활동을 유지하게 된다. 여기서의 氣는 津, 液, 血, 脈, 精, 氣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육체와 정신의 기능활동에 필요한 영양소이다. 즉 인체의 氣는 육체와 정신의 기능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또 『黃帝內經』에서는 氣에 물질적인 특성과 정신적인 특성이 모두 있다고 인식하였는데, 예컨대, “氣合而有形”이라 한 것은 氣가 뭉치면 형체가 된다는 뜻으로 氣에 물질적인 특성이 있음<sup>22)</sup>을 말한 것이며, “血氣者, 人之神也”라 한 것

18) 漢文大系20, 淮南鴻烈解, 卷第一, 原道訓, pp. 29

19) 司馬遷, 《史記》, 권130, 太史公自序 第七十, pp. 3292 中華書局, 北京, 1984.

20) 漢文大系21, 管子纂註, 卷十六, 內業 第四十九, p. 3

21) 漢文大系20, 淮南鴻烈解, 卷第七, 精神訓, p. 8

22) 이외에도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形歸氣” “氣生

은 氣가 또한 神으로도 化할 수 있다는 뜻으로 氣에 정신적인 특성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氣機의 失調는 육체와 정신 모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예컨대, 『素問·刺志論』에서 “氣實形實, 氣虛形虛, 此其常也.”라 하였는데, 이는 氣의 虛實이 육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말한 것이다. 또 “其神易動, 其氣易往”(『靈樞·行鍼』)이나 “愁憂者氣閉塞而不行”(『靈樞·本神』) 등은 精神이 氣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 것이다<sup>23)</sup>. 이로 볼 때, 氣는 육체와 정신의 중간물로서 形과 神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정신과 육체의 협조와 통일에 의해서만이 생명활동이 가능한 것인데, 氣가 곧 정신과 육체 사이의 협조와 통일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다. 『靈樞·本神』에서도 “肝藏血, 血舍魂”, “心藏脈, 脈舍神”, “脾藏營, 營舍意”, “肺藏氣, 氣舍魄”, “腎藏精, 精舍志”라고 하여, 肝, 心, 脾, 肺, 腎 등의 五藏과 魂, 神, 意, 魄, 志 등의 다섯가지 정신작용이 血, 脈, 營, 氣, 精 등의 다섯가지 기운을 매개로하여 상호작용한다고 인식했다.

이와 같이 인체를 形, 氣, 神의 합일체로 보는 사상은 『黃帝內經』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었다. 즉 『淮南子·原道訓』에서는 “夫形者, 生之舍也, 氣者, 生之充也, 神者, 生之制也, 一失位則三者傷矣.”라고 하여, 생명은 形과 氣와 神의 세 요소가 통합하여 된 것으로, 이 중 하나라도 이상이 발생하면 나머지도 모두 손상된다는 것이다. 즉 形과 氣와 神이 합쳐서 하나의 생명을 이루는데, 形은

생명이 깃드는 곳이며, 氣는 생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며, 神은 생명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의 形은 筋, 骨, 皮毛, 肌肉, 藏府 등 공간을 차지하는 인간의 육체를 말한 것이며, 氣는 精, 氣, 津, 液, 血, 脈 등의 形을 구성하고 영양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氣를 말한 것으로 그것의 운동과 기능활동도 포함하는 것이며, 神은 인체의 생명활동을 통제하는 無形의 정신을 말한 것이다.

『黃帝內經』에도 이와 비슷한 언급이 보이는데, 『靈樞·根結』에서 “調陰與陽, 精氣乃光, 合形與氣, 使神內藏.”이라 하였다. 비록 『淮南子』의 서술방식과는 다르지만 역시 인간의 생명이 形과 氣와 神의 세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으며 또 神이 전체적인 생명활동을 주재한다고 본 점에서는 똑같다.

결국 神은 氣血의 운행을 통제함으로써 藏府, 筋骨, 肌肉 등의 형체를 滋養하거나 형체의 기능활동을 주관하며, 또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治愈를 촉진할 수 있다. 반면에 形은 氣血을 생성하고 저장하여 神에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神이 기능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육체의 변화는 氣의 변화를 거쳐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sup>24)</sup>, 반대로 정신의 변화는 氣의 작용을 거쳐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25)</sup>. 결국 육체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모든 변화현상은 모두 氣의 작용을 통해 발현된다. 『黃帝內經』에서 질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氣의 상태를 살펴 정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을 중시<sup>26)</sup>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形이라 하여 形과 氣가 相互轉化할 수 있다고 하였다.

23) 이외에도 《素問·調經論》에서 “血并於上, 氣并於下, 心煩惋善怒. 血并於下, 氣并於上, 亂而喜忘.”이라 한 것이나, 《靈樞·五亂》에서 “清氣在陰, 濁氣在陽, 營氣順脈, 衛氣逆行, 清濁相干, 亂於胸中, 是謂大悅. 故氣亂於心, 則煩心密嘿, 俛首靜伏.”라고 한 것은 氣機의 실조로 인해 정신이 손상되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24) “夏刺肌肉, 血氣內却, 令人善恐, 夏刺筋骨, 血氣上逆, 令人善怒. 秋刺經脈, 血氣上逆, 令人善忘……冬刺肌肉, 陽氣竭絕, 令人善忘”《素問·四時刺逆從論》

25) “若有所大怒則, 氣上而不下, 積於脇下, 則傷肝”《靈樞·邪氣藏府病形》

“憂恐忿怒傷氣, 氣傷藏, 乃病藏”《靈樞·壽夭剛柔》

26) “工巧神聖, 可得聞乎. 岐伯曰審察病機, 無失氣宜, 此之謂也.”《素問·至真要大論》

## 5. 結論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黃帝內經』의 관점을 개괄해 보면, 인간은 정신과 육체가合一된 존재로서, 둘 사이에는 상호 대등한 관계와 精神이 우위에 선 주종적인 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합일은 반드시 氣를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黃帝內經』의 인간관을 굳이 이름한다면 氣本體論의 形神合一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黃帝內經』의 이같은 생각은 모든 질병은 氣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치료할 수 있다는 한의학의 기본이론과 일치하는 것이며, 특히 정신질환도 약물, 침, 기공, 도인안마 등 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 參考文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 張基槿·李錫浩 譯, 『老子·莊子』, 三省出版社, 1987
4. 張介賓, 『類經(上·下)』, 大星文化社, 1986
5. 張介賓, 『類經圖翼』, 大星文化社, 1986
6.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北京, 1984.
7. 폴 데이비스 지음, 류시화 옮김,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정신세계사, 1989
8. 최영진, 『精神과 物質의 문제에 관한 易學的 考察』, 『주역의 현대적 조명』, 韓國易學會編, 범양사, 1993
9. 陣夢雷·蔣廷錫 등 著, 『圖書集成醫部全錄2』, 大星文化社, 1986, 서울
10. 漢文大系 20, 淮南鴻烈解, 富山房發行, 1984, 增補版第二刷, 東京
11. 漢文大系 21, 管子纂詁, 富山房發行, 1984, 增補版第二刷, 東京